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 시상식

2016년 12월 15일(목) 16:30~18:30

노보텔엠배서더호텔 강남 샴페인홀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실현해 내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 계발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41년 전 리더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해 나가면서 HDI 창립이념인 인간경영의 철학을 실천하는 우수한 기업, 기관의 경영자를 발굴하여 시상식을 만들어 제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가 배출되고, 그러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영 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와 기업 발굴로 미래 세대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와 조직을 꿈꾸고 실천하며, 그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고자 신선했던 인간경영대상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한 영 섭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 이금룡입니다.

먼저, 인간개발연구원이 작년 처음으로 “인간경영대상”을 제정하고 올해 2번째 시상식을 갖게 됨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2번째 연이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어 더욱 기쁘고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제품과 기업,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상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간경영”이라는 주제로 부여하는 상은 인간개발연구원 밖에 없는 고유한 상입니다.

특히나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기치로 우리 기업의 경영자들과 시도지사, 군, 경찰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의 힘으로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어온 인간개발연구원이기에 그 수상의 영예가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번 HDI인간경영대상은 8월 말 경제계 인사들에게 추천받은 60개 기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23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 평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6개사의 경영자와 4개 단체를 추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재산 이사장님 등 7명의 심사위원, 이경숙 이사장님 등 11분의 심사평가 자문 위원께서 10월 28일, 11월 15일 별도로 심사회, 평가 회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하게 추대한 만큼 수상하시는 분들의 공적은 상의 영예에 견주어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작년에도 그러하였지만 재무적 관점이 아닌 수상자의 철학과 실천이 살아 숨 쉬는 강소기업, 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았습니다. 사회 공헌도, 사회봉사, 상생경영, 복지와 인재 양성에 특별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 경영자, 단체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훌륭한 경영자, 지자체를 발굴하여 시상을 하는 노력에 심사위원장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 축하의 마음을 정중히 전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심사위원장 이금룡



이금룡
심사위원장





김 황 식

HDI 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제2회 인간경영대상에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신 경영자와 각 지자체를 선정함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인간존중, 섬김의 리더십으로 경영자 본인의 교육은 물론 더 나아가 임직원 교육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수상자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수상자 중 특별상의 영예를 받으시는 심갑보 상임고문님과 상생경영부문의 이윤수 고문님은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딛고 바르고 정대한 기업환경을 만드신 공이 크시어 후배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지속가능, 인재개발, 사회소통, 사회복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바쁘심에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 지방행정부문에서 지자체가 더욱 발전해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시고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는 경영자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숨은 일꾼들, 지자체를 찾아 빛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을 축하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HDI 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황 식**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입니다.

먼저 인간존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과 자치의 모범사례를 실천하고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기계·기술중심, 대량생산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간개발연구원은 인간존중, 인간경영의 가치를 과감히 주창했습니다. 오늘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은 사람을 경영의 중심에 놓았던 인간개발연구원의 선구자적 지혜가 만들어낸 뜻깊은 시상입니다.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밀레니엄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사회·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잡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존중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늘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과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인재대국, 인재강국으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초기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간경영대상을 수상하신 심갑보 고문님, 이윤수 고문님, 강창국 회장님, 민남규 회장님, 한재권 회장님, 이병구 회장님, 경주시(최양식 시장님), 구미시(남유진 시장님), 장성군(유두석 군수님), 강서구청(노현송 구청장)님에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 대 평



심 대 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황우여입니다.

존경하는 장만기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인간개발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지난 41년간 대한민국 리더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식뿐 아니라 따뜻한 성품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간개발연구원이 가진 신념은 매우 적절하며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개발연구원은 선진 교육에 힘쓰며 현재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는 산 교육의 증인입니다.

어느 나라든 교육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제공한 교육이라는 무기를 통해 많은 리더들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며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로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 경제적 혁신을 이룰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려웠던 시절 나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처럼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귀빈들께도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축하하고 축하받을 기쁜 날입니다. 훌륭한 수상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나라 경제에 큰 기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우리들의 멘토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뛰어난 인물 뒤엔 훌륭한 스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린 제2회 인간경영대상을 통해 한 층 더 밝은 길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수상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안녕하십니까. 손경식입니다.

41여 년간 대한민국 리더 양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이루어 왔던 인간개발연구원이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시는 훌륭한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사례를 전파하는 HDI인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이러한 훌륭한 시상식을 기획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아주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 원리 덕에 빠른 성장으로 국가 경제가 선진국가로 변화하였지만 행복사회로 바뀌어 가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은 부족하였습니다.

수직적인 명령체계에서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조직 리더의 인본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질적으로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우리 주위의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경영자를 보고 배워서 더욱 철학이 탄탄한 리더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시상과 노력을 통해서 수상자분들과 훌륭한 경영자분들이 미래세대에게 멘토가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시작하여 1회부터 올해 2회까지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어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를 올리며,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훌륭한 리더들의 면모를 찾아내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잘 수행해 내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16년 12월 15일

C그룹 회장 손 경 식



손 경 식

C그룹 회장



● 심사위원

직 책	이 름	회 사
위 원 장	이금룡 회 장	코글로닷컴
부위원장	가재산 이사장	피플스그룹
위 원	구건서 대 표	네비게이터십
위 원	김선화 대 표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위 원	염동호 이사장	한국메니페스트 정책연구소
위 원	이수경 대 표	가정행복코칭센터
위 원	이홍민 대 표	휴먼이퀘이션

● 평가자문위원

직 책	이 름	회 사
위 원 장	김항식	제 41대 국무총리
위 원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위 원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위 원	손경식	CJ그룹 회장
위 원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위 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상임고문
위 원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위 원	이만의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
위 원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위 원	조남철	한인문화진흥원 원장
위 원	황우여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시상식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6:30	집결 및 환담 - 귀빈 영접 / 간담회 / 포토존 촬영	2층 노르망디홀
16:50~17:00	축하공연	김경아 소프라노 외 Trio
17:00~17:30	개 회	정찬우 아나운서
	국민의례	
	개 회 사	장만기 회장
	심사총평	이금룡 심사위원장
	축 사	김황식 HDI 미래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7:30~18:30	시 상 식 - 공공기관 부문 - 일반기업 부문	평가자문위원(장) 외 다수
	수상자 소감발표	수상자

● 수상자 명단

| 공공기관 |



지속가능부문
경주시
최양식 시장



인재개발부문
구미시
남유진 시장



사회소통부문
장성군
유두석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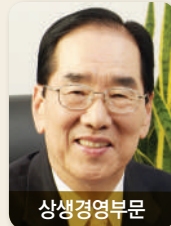


사회복지부문
강서구
노현송구청장

| 일반기업 |



특 별 상
삼익THK
심갑보 상임고문



상생경영부문
KCTC
이윤수 상임고문



사회공헌부문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



인재경영부문
네패스
이병구 회장



사회봉사부문
자강산업
민남규 회장



인재교육부문
조인그룹
한재권 회장



경주시 | 최양식 시장

- 제32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2014. 07 ~)
- 제31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2010. 07 ~ 2014. 06)
- 제8대 경주대학교 총장(2008. 03)
- 제8대 행정자치부 제1차관(2006. 08 ~ 2008. 02)

경주시는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부자도시 경주를 위해 신라시대부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일관성 있게 계승 발전시키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로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를 유치하여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新 문화 관광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농축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잘 사는 농촌, 돈 되는 축산,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FTA의 높은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제시는 물론 8,107억 원을 투자하여 204개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써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모델인 ‘힐링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 대회,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및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였다.

경주시는 밖으로는 지역개발 및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영천~경주~언양 구간을 확장하였고 도심 생태하천을 조성, 읍면소재지를 정비하였고 재해위험지구는 별도로 정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유치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시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최고의 명사초청 프로그램인 화백포럼 및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청사를 갤러리로 조성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시장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는 문화바우처 운영, 취미클럽 활성화 등 직원 복지 증진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2014년)
- 공감경영 대한민국 CEO 대상(2015년)
- 지역 혁신 경영 대상(2015년)
-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2016년)
- 지방자치 행정 대상(2016년)



인재개발부문

HDI
공공기관
수상자

구미시 | 남유진 시장

- 민선6기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2014. 07 ~)
- 민선5기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2010. 07 ~ 2014. 06)
- 민선4기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2006. 07 ~ 2010. 06)
- 대통령비서실 국장(2000)



구미시는 배움으로 꿈을 잡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고품격 강의로 평생교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도록 인문학 도시 육성, 쾌적한 산업도시 건설, 경제영토 확장과 산업구조의 다각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등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 산업도시 명성에 걸맞게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 건설을 위해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전국 최초 탄소제로도시 선포,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이끌어 온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시가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 5공단 확장 단지 등 총 350만 평의 경제영토 확장을 추진하였다.

구미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미 전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범죄 예방 디자인(CPTED) 도입 등 인프라 구축 강화에 주력하였고,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최첨단 '환경자원화 시설'을 준공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스포츠 도시로 도약,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의 기회 제공, 대한민국 복지 1등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미시의 노력으로 인해 성장하는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CEO대상(2007 헤럴드 경제)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회장(2013)
- 제18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2013)
-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수상(2014)
- 세계부부의날 기념 「올해의 시장 부부상」 수상(2015)



장성군 | 유두석 군수

- 제38대 전라남도 장성군 군수(2014. 07 ~)
- 제35대 전라남도 장성군 군수(2006. 07 ~ 2007. 10)
-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2005. 07)
- 국립지리원 지도과 과장(2000.09)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가치가 빛나는, “함께”가 주는 의미와 그 힘은 위대하다. 장성군은 이러한 의미를 실천하고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이라는 군정 목표 그대로, 행정이 앞서 주도해 가는 방식이 아닌, 군민과 함께 창조해가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지역발전에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참여문화를 접목하였다. 그리하여 탄생한 전국 최초 색 마케팅 브랜드 사업인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창조해 가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인 ‘옐로우시티 장성’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22년째 매주 개최하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평생교육의 효시라 불리며 한 해 1만 여명의 공직자와 기업인이 다녀가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장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교육 실천을 통해 세대와 지역 간의 벽을 넘는 사회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유치, 효도권 지원사업 확대,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 1번지 장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 맞춤형 희망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정과 사회교육을 통해 “함께”라는 가치를 구현하여 사회소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근정포장(1986)
- 녹조근정훈장(1992)
- 대한민국경영대상(2015, 2016)
- 한국의 최고경영인상(2015, 2016)



사회복지부문

HDI
공공기관
수상자

강서구 | 노현송 구청장

- 제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2014. 07 ~)
- 제6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2010. 07 ~ 2014. 06)
-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2008 ~ 2008. 05)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 05 ~ 2007. 02)



강서구는 강서만의 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희망드림사업의 컨트롤 타워 “Yes! 강서 희망드림 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구심점 역할을 위한 강서희망복지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함께 만드는 복지 공동체 “Yes! 강서희망드림사업”을 전개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균등한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 발굴단”을 민관 연합으로 운영하여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기가구들의 유형별로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평등한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을 나누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이나 의료 서비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한방 건강증진 “사상체질웰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5년 연속 “최우수(SA)등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2~2016)
-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 행정자치부(2016)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 국민안전처(2016)
-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상 - 행정자치부(2015)
-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 보건복지부(2015)
-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우수구 - 서울특별시(2015)
- 대한민국 우수 지역축제 선정 - 동아일보(2014)
-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문화진흥부문) 대상 - 헤럴드경제(2013)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기관 - 행정자치부(2012)
- 서울 석세스 어워드 정치부문대상 / 기초단체장 - 서울신문(2011)



삼익THK | 심갑보 상임고문, 前 부회장

- 삼익THK 부회장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

삼익THK(주)는 1960년 5월 10일 공구류의 일종인 각종 줄(File)을 생산 판매하는 영세기업으로 출발하였고 1970년대에는 가정 용품의 필수품인 삼익 쌀통을 생산 판매하였다. 이 두 제품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 성장의 한계를 느껴 1984년에 일본 THK 사와의 제휴 아래 LM System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대리점으로 변신하였으며 1989년 9월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그해 11월 KS 업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후 LM System의 국내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일본 THK 사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년 국내 최초로 LM 가이드 생산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반도체 장비, LCD, 로봇, 공작기계 등 자동화 설비 업체에 LM System, 볼스크류 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성장 중견기업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심갑보 상임고문은 1970년 2월에 삼익THK 상무이사(9년)로서 경영에 참여한 이래 전무이사(3년),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30년)으로 42년간 봉직하면서 2012년 3월 퇴임할 때까지 영업에서의 목표관리제도와 point system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의 내실을 다졌고 삼익THK 사가 영세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 중견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퇴임 후에도 상임고문으로 상근하면서(5년간) 후전에서 후배들을 돕고 있다.

심 상임고문은 기업 경영 외에도 노사관계 전문가로서도 유명한 분이다. 노사관계개혁 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15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 위원(10년), 국무총리 정책평가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심 상임고문은 공부하는 CEO로도 유명하다. 인간개발연구원을 비롯한 10여 개의 조찬회에서 40여 년간 6,000여 회를 참여하면서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 내용을 카세트 Tape, CD 등에(6,000여 개) 담아 자료실에 보관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대 경영」에 10년간 경영칼럼을 고정 연재하기도 했다. 영남대학교 행정 학부에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관련 기업체, 대학 특수과정 등에 많은 특강을 실시하였고 영남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상생경영부문

HDI 일반기업 수상자

KCTC | 이윤수 상임고문, 前 부회장

- KCTC 부회장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장
-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 제15대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고려해운이 전신인 글로벌 물류기업 케이씨티시(KCTC) 이윤수 고문(전 부회장)은 “43년의 물류 운영 노하우로 윈스톱 물류서비스를 글로벌 화주기업 및 국내 우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종합 물류기업이다. KCTC는 최상의 물류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 500억 원을 투입해 덕평물류 센터를 2014년 4월에 착공하였다. 1년 2개월에 걸친 끝에 지난해 6월에 완공, 다양한 물류 인프라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 고객사가 성공적인 물류운업을 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에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의 면모를 탈바꿈하였다.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윤수 고문은 KPI(핵심성과지표), 운영 리포트 등을 고객사에 제공해 입출고 및 재고관리는 물론 실시간으로 화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앱(APP)을 통한 창고관리시스템(WMS), 배송관리 시스템(TMS)의 운영으로 정보 일치화를 이룬 이런 시스템으로 물류업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화주·물류기업의 공생발전을 추진하고, 한·일 항만 물류업계 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윤수 고문은 인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생 80의 연륜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오너와 전문경영인과의 신뢰의 경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없이 수익 면에서도 큰 성과를 내는 외유내강형의 리더십을 보였고 다음 CEO와의 승계까지도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남기기도 한다.

또한 2012년~2015년에 걸쳐 CEO의 가치관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가치관 전도사인 임원의 리더십 그리고 실행 부서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치관 경영과 내재화를 위해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었고, KCTC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KCTC 식 가치관 경영을 전개함과 동시에 노사화합의 따뜻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글로벌 물류기업 Great KCTC라는 Grand Vision을 가치로 삼고 특히 최근 해운업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KCTC는 오히려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렇듯 KCTC가 업계 리더로서 큰 몫을 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한 이윤수 고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수상을 추진 하게 되었다.



동국성신 | 강국창 회장

-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 ROTC중앙회 자문위원
-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 부회장
- 동국개발, 가나안전자정밀 회장

강국창 회장은 가나안전자정밀과 동국성신, 동국개발 등을 통해 국내 4곳과 해외(중국, 멕시코) 3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가나안전자정밀이 1천만 불 수출탑을, 2014년 동국성신이 1천만 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연세대 전기공학과 출신의 강국창 회장은 냉기 유지를 위해 냉장고 문에 장착되는 마그네틱 장치를 비롯해 세탁기 공기방울 펌프장치, 전자밥솥 보온 센서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전의 전설’이다. 한국 산업화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온 강 회장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한다. 그는 “어느정도 성공을 이룬 지금도 일반 직원보다 비싼 밥을 먹지 않는다”며 이미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빈부격차와 기업에 대한 적대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사업가로 성공한 것을 두고 몇 번이고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는 뜻이다.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지역 기업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에 성공한 그는 가전 부품 회사에 입사, 전자산업과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성신 하이텍(옛 성신화학)을 창업하며 사업에 나선 강 회장은 처음부터 국내 최초나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기술의 제품이 아니면 만들지도 않았다고 한다. 세탁기·TV 등 각종 가전제품 부품에 관한 국내 최초 기술을 수 없이 만들어내 각종 대기업에 납품하는 등 한국 전자산업의 자립기반을 튼실히 하는 데 일조했다.

강 회장은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한다. “남을 돕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땅에서의 상은 거의 받은 것 같아서, 남은 삶은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사용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강 회장은 “나는 투자를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돼도 돈이 쌓여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돈이란 것은 벌려고 욕심내면 오히려 벌 수 없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업 전반에 걸쳐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착한 기업의 상장을 보여주는 기업인이다. 함께 나누는 세상’의 북한 어린이 우유 보내기 사업 등 한국기독실업인회에서 기독 리더들을 대표하여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소통을 위해서 사회 공헌 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인재경영부문

HDI 일반기업 수상자

네패스 | 이병구 회장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충북경제포럼 회장
- 월드클래스300 부회장



반도체·전자재료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인 (주)네패스 이병구 회장은 그라티튜드 경영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며, 성과 창출을 위해 경쟁의 패러다임보다 협력의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네패스는 ‘그라티튜드(Gratitude) 경영’을 강조하는 특별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직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데서 시작된다”며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고 한다. 이병구 회장은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모여 같은 꿈을 가지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님으로써 회사를 즐거운 일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네패스는 ‘3·3·7 라이프’ 운동을 한다. 이는 직원들이 동료들과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고, 하루에 3가지 좋은 일을 나누고, 하루에 7가지 이상 감사편지를 쓰는 운동이다. 또한, 네패스 직원들이 사용하는 고유 인사말 ‘슈퍼스타’는 상대방의 재능과 역량을 칭찬함으로써 당신을 깊이 존중하고 섬기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병구 회장은 이와 같은 그라티튜드 문화를 통해 직원 간의 관계가 최적화되며 직원들의 마음 근육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는 곧 기업의 매출 상승과 연관된다.

신규 입사자 OJT에 사회봉사 커리큘럼을 정규과정으로 넣을 정도로 봉사하는 인재를 표방하는 네패스는 충북 내 18개 종교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충북대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사랑의 병원 건립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 나눔을 실천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1인 1구좌의 자발적 기부 문화를 형성하여 직원들의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기부하는 1:1 n나눔씨앗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 배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대상 행복 바이러스 나눔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경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구 회장은 26년 전 (주)네패스를 창업해 연 매출 3,000억 원의 반도체·전자재료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글로벌 진출로도 앞서나가는 네패스는 중국 장쑤성 정부와 합작해 장쑤네패스를 설립하고 지난해 1만 평 규모의 DDI(드라이버 IC) 패키징 및 WLP(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장을 건설, 본격적으로 중화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병구 회장은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 기여와 공유가치경영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한중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강산업 | 민남규 회장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 케이디캠 회장
- 남웅전자 회장
- 국립극장 이사

민남규 회장은 1974년 고려화학공업사를 설립한 이래 서울동부청년회의소 회장, 국립극장 이사, 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이사, 한국산악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플라스틱 산업계는 물론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기부활동으로는 안중근 유해발굴 지원, 페르시아와 신라간의 역사 서사시 “쿠시나메” 번역지원, 산악인 오은선과 故 박영석 등 산악인들을 후원, 피아니스트 조성진군 2009년부터 후원, 고려대학교에 50억 원 기부로 생태 환경 복원연구소인 OJERI연구소 설립, 오정 대강당 건립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민남규 회장은 ‘세로토닌 드림클럽’의 회장직을 맡아 현재 전국 220개 중학교 세로토닌 드림클럽을 창단하여 매년 3,300명의 학생들을 선도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군부대에 드림클럽을 창단하여 직접 5개의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드림클럽을 설립해 후원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민남규 회장은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디캠(주), 자강산업(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등은 각각 국내 플라스틱소재 관련 국내 선두주자로 키워냈다.

“기부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남규 회장은 2014년 포브스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과 교육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시아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다.



인재교육부문

HDI
일반기업
수상자

조인그룹 | 한재권 회장

- 대한양계협회 이사
- 한국가금학회 이사
-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 농업관측 중앙자문위원



이곳에서 닭이 낳은 달걀은 황금알이 된다. 국내 1위 계란 유통회사 ‘조인’은 1979년 작은 병아리 부화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첨단식품그룹으로 우뚝 섰다. 이는 한재권 회장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좋은 먹거리가 행복의 실천’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엄격한 사양관리와 최첨단 생산시설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좋은 달걀을 만들기 위해 연구시설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먹거리 기업은 솔직해야 한다는 한재권 회장의 신념에 따라 계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다.

한재권 회장을 움직인 원동력은 바로 ‘학습의 힘’이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심하게 느낌 40대부터 독파한 전문 서적이 1,000여 권에 이르며 움직이는 시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재권 회장은 본인의 배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직원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직원들에게도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실시하여 당사 순이익의 10%를 함께 나누는 나눔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한재권 대표의 나눔경영은 직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강원대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1억을 기부하며 동물생명과학대학 외국인 연수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축산 농장에서 시작하여 먹거리 산업의 첨단을 걸으며 미래 성장기업으로 일구어내고, 이처럼 인간존중의 정신과 정직함의 원칙으로 배우고 키워나가는 기업 경영자로서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제1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

종합대상



구 자 관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사원

상생경영부문



윤 동 한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

사회공헌부문



최 규 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인재경영부문



이 형 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사회봉사부문



두 상 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교육부문



김 영 철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특별상



김 병 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